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 팩스 857-8549	미사시간	주일	토요일 주일 : 16:00 (유·초등부 소성전), 19:00	
			06:30 (새벽),	10:30 (교중)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년)	
	평일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세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회장	우성식 바오로 010-2899-4654			

● 모임

단체명	일시	장소
통합복사단	3월 03일(일), 11:00	교사회합실
위령봉사회	3월 03일(일), 11:40	강당
M.E.	3월 03일(일), 11:50	6교실
제대헌화회	3월 05일(화), 10:30	2교실
2Cu.-사도들의 모후	3월 10일(일), 12:00	강당
1Cu.-우리어머니	3월 10일(일), 12:30	보스코홀
임원 모임	3월 13일(수), 20:00	식당

● 사순 특강 (수요일 저녁 20:00)

일자	제목	강사
3월 06일	주님과 함께 걷는 사순시기 (친교)	김영선 루치아 수녀님
3월 20일	주님과 함께 걷는 사순시기 (참여, 선교)	(마리아 정교자 프란치스코회)

● 십자가의 길 (월~금요일 아침, 저녁)

- 사순 기간 동안 매일 아침(05:50) '십자가의 길' 전례 담당은 전례 봉사자가 합니다.
- 저녁(18:20)에는 담당 구역에서 합니다.
- * '십자가의 길' 전례 담당 구역 *

3/04(월)	3/05(화)	3/06(수)	3/07(목)	3/08(금)
14구역	15구역	16구역	17구역	18구역
3/11(월)	3/12(화)	3/13(수)	3/14(목)	3/15(금)
19구역	20구역	21구역	22구역	23구역

● 알림

- 살레시오와 꿈(CUM) 후원미사 3월4일(월), 오전10시
- 시니어 아카데미 개강이 3월7일(목), 10시미사후에 지하강당에서 있습니다.
- 3월 16일(토) 부활 맞이 본당 대청소가 있습니다.
- 3월 17일(일) 오후 2시 레지오 아치에스 행사가 성전에서 있습니다.
- 3월 병자 영성체는 지역별로 있습니다.

● 태중아기 축복식

- 매달 셋째주 토요일 오전11시
- 문의 : 본당 사무실 (02-857-8541)
가정생명환경분과장 백희자 스텔라(010-5314-4939)

※ 올해부터 출생축하금 본당지원

● 묵주기도 10억단 바치기 운동

- 지향 :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
- 묵주기도 10단에 묵주알 1개를 봉헌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봉헌함은 성전 입구 우측에 있습니다.

● 예비신자 교리반 신청

- 주일반(일, 오전 9시), 평일반(화, 오후 8시)
- 사무실에서 신청받습니다.

● 다음 주일(3/10)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7구역	청소	23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2월 21일 ~ 3월 5일)

- 교무금 10,557,000 원
- 주일헌금 4,705,600 원
- 오라토리오를 위한 2차헌금 1,952,000 원
- 이순옥10만원 황정후10만원 박기락 5만원
송명순 5만원 여성지 5만원 심광술10만원
- 감사헌금 송영순 5만원 김태번10만원 정영자 1만원
익명 5만원 익명 5만원 익명 8만원
14구역국수잔치5만원 21구역 국수잔치5만원

● 교종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설	복사	독서
3/03	손진희	조홍한	김영균
3/10	구민서	오성환	김진수
			안상록
			홍명순

●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3/03	최영만	김영배	하재민	최승일
3/10	장익근	박승환	박형순	최석준
				옥윤필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찬미 받으소서”-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

71. “사람들의 악이 세상에 많아지자” 하느님께서 “세상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 하셨지만 하느님께서는 의롭고 흠 없는 노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느님께서는 인류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희망을 되찾는 데에는 의로운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성경 전통은 이러한 회복에 하느님께서 직접 자연에 새겨 놓으신 순환의 재발견과 존중이 동반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예를 들어 이는 안식일의 율법에도 나타납니다. 이렛날에 하느님께서는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렛날마다 쉬도록, 곧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이스라엘은 일곱째 해는 땅을 위한 안식의 해로 지내게 하셨습니다. 이때에는 씨를 뿌려서는 안 되고 자신과 가족의 생계에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들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안식년을 일곱 번 지내면, 곧 마흔아홉 해가 지나면, 모든 것에 대한 용서와 “땅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희년을 거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율법의 전개는 인간이 다른 이들과 맺은 관계와 그들이 살고 일하는 땅과 맺은 관계에 균형과 공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땅의 결실을 포함하여 땅이 주는 것은 모든 이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땅을 경작하고 돌보는 이들은 그 결실을 특히 가난한 이들, 과부, 고아,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과 공유해야 하였습니다. “너희 땅의 수확을 거두어들일 때, 밭 구석까지 모조리 거두어들여서는 안 된다. 거두고 남은 이삭을 주워서도 안 된다. 너희 포도를 남김없이 따들여서는 안 되고,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를 주워서도 안 된다. 그것들을 가난한 이와 이방인을 위하여 남겨두어야 한다.”

72. 시편은 창조주 하느님을 찬송하라고 자주 우리에게 권유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땅을 물 위에 펼쳐 놓으신 분”으로 “주님의 자애는 영원”합니다. 또한 시편은 우리와 함께 찬미하도록 다른 피조물들을 초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반짝이는 모든 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의 하늘아 하늘위에 있는 물들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분께서 명령하시자 저들이 창조되었다.” 우리는 하느님의 권능으로만이 아니라, 하느님을 마주하며 하느님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흠송하는 것입니다.